

학원·보육시설 성범죄 무방비

강사 등 범죄 저질러도 다시 강단 서기 일쑤

성범죄 경력 의무 조회 강화해야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이 학원 등 사교육 현장에서 각종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의무 조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피해 학생이 사실을 감추려하거나 고소를 취할 경우 성폭력을 행한 강사가 다시 강단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많아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17일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한 학원의 A(47)원장이 강의실에서 원생

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학원 강의실에서 B(당시 12세)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B양의 부모에 의해 고소당했지만 현재까지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도 B양 가족과 합의를 통해 고소가 취하되면 강단에 설 수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학교 교사가 아닌 사설 학원이나 교습소 강사들에 대한 범죄사실 조회 및 통보 의무 등이 없기 때

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9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사설 교습소 원장 C(39)씨가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현재까지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C씨는 경찰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강단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 학부모나 관련 단체 등은 학원 강사들에 대한 수사기관 교육기관 업무협조체제 구축 및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학원 강사들에 대한 성범죄 경력 의무 조회 등을 도입하고 해당 지자체나 교육청에 범죄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상황은 일선 학교나 지자체의 감독을 받는 아동·보육시설도 비슷하다.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교사와 강사에 의한 아동 성폭력 피해 사례는 6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1건만 영아학원 강사였을 뿐, 5건은 일선 학교 교사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강사를 통해 636개 아동시설과 보육시설에서 종사자 2천71명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동구와 서구, 광산구 등은 시의 시정 조치에 따라 뒤늦게 성범죄 경력 조회에 나서 반축을 사기도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일반 주민·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색깔 차별

광주 남구·동구 '인권침해' 논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주민들이 사용하는 쓰레기봉투 색깔이 다르다면 인권침해인가, 재활용 처리를 위한 묘책인가? 광주의 일부 구청들이 기초수급자와 일반 주민들의 쓰레기봉투 색깔을 각각 달리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구는 2007년 7월 1일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이후 봉투의 색깔을 변경한 뒤 일반 주민에겐 노란색을, 기초수급자에겐 기존의 녹색을 배포하고 있다.

또 남구의 경우 일반 주민들의 봉투 색깔은 몇 차례 바뀐 것과 달리 기초수급자의 봉투는 녹색으로 변함이 없어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같은 상황은 동구도 비슷하다. 동구는 재고 처리의 일환으로 가격인상 이전의 쓰레기봉투를 기초수급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일반 주민에겐 노란색을, 기초수급자에겐 빨간색을 나눠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주민과 기초수급자

는 쓰레기 수거장소에 각기 다른 쓰레기봉투를 내놓고 있다. 기초수급자의 입장에서 무료로 나눠준 봉투라는 '자격지심' 탓에 쓰레기를 내놓을 때마다 주위의 눈치를 보기 일쑤다. 이 때문에 일부 기초수급자들 사이에선 인권침해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역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구청의 의도와 달리 일반 주민과 차별화된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경우 서로 구분되면서 기초수급자들이 자치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색깔이 변경된 이후 수거된 쓰레기봉투를 그냥 버리기 아까워 재활용차원에서 기초수급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구 관계자는 "예전부터 기초수급자에겐 녹색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나눠줬을 뿐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인원침



목포수협조합장 기소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4일 인사 및 채용 등을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모씨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조합원과 직원 등으로부터 자신이 수협으로부터 발린 돈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아주고 직원 채용 청탁 대가 등으로 고급 양주와 1천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목포=이성휴기자 lsh@

현금함 속 현금 4년전 범인 붙잡아

○광주의 한 교회 현금함을 털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20대 재소자가 현장에 현금을 남기는 바람에 4년 만에 범행이 들뜬다. ○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강도상해죄로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모(24)씨는 2005년 11월 15일 새벽 2시20분께 서구 삼촌동 모 교회에 몰래 들어가 현금 52만원이 든 현금함을 훔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 ○김씨는 당시 교회 현금함을 훔치는 과정에서 손을 다쳐 현장에 혈흔을 남긴 채 도주. ○경찰은 지난 1월 20일 강도상해죄로 입건된 김씨의 DNA를 분석한 결과, 4년 전 채취한 혈흔과 동일한 사실을 알고 김씨를 검거.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에 한 교회 현금함을 털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20대 재소자가 현장에 현금을 남기는 바람에 4년 만에 범행이 들뜬다. ○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강도상해죄로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모(24)씨는 2005년 11월 15일 새벽 2시20분께 서구 삼촌동 모 교회에 몰래 들어가 현금 52만원이 든 현금함을 훔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 ○김씨는 당시 교회 현금함을 훔치는 과정에서 손을 다쳐 현장에 혈흔을 남긴 채 도주. ○경찰은 지난 1월 20일 강도상해죄로 입건된 김씨의 DNA를 분석한 결과, 4년 전 채취한 혈흔과 동일한 사실을 알고 김씨를 검거.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주차장서 잠 든 40대 꽃샘추위에 동사

3일 오전 8시께 광주시 동구 공동 Y주차장 1층에서 고모(46·광주시 북구 계림동)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출근하던 김모(3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고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발견 당시 고씨의 머리에 2cm의 긁힌 상처가 있었으나, 경찰은 둔기에 맞은 흔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꽃샘추위 속에 술에 취한 채 잠들어 동사(凍死)한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노인들 "일자리 찾았다"

4일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2009 노인일자리 통합 발대식' 참가자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순해실사, 노인돌보미, 주거개선단으로 활동할 3천500여명의 노인들이 참석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대해 소방당국은 ▲편안한 자세로 누워있는 시신의 상태와 연속되지 않은 발화 패턴 ▲인화물질 없이는 잘 타지않는 장판이 대부분 타버린 점 ▲불이 나기 전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점 등을 이유로 화재원인을 방화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 등을 조사한 결과 다투는 소리는 화재가 나면서 물건이 부서진 소리로 판단하고 있으며, 방화로 불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가정집 불 세입자 사망

광주 월산동, 경찰 방화가능성 수사

가정집에 불이나 방에서 잠을 자던 50대 남성이 숨진 가운데 화재원인을 놓고 경찰과 소방당국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4일 새벽 3

시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이모(53)씨의 집에 불이 나 잠을 자던 이씨가 숨지고 주택을 전소시켜 3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대해 소방당국은 ▲편안한 자세로 누워있는 시신의 상태와 연속되지 않은 발화 패턴 ▲인화물질 없이는 잘 타지않는 장판이 대부분 타버린 점 ▲불이 나기 전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점 등을 이유로 화재원인을 방화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 등을 조사한 결과 다투는 소리는 화재가 나면서 물건이 부서진 소리로 판단하고 있으며, 방화로 불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남성 헤어 기능장비 **大山프리모님네기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대신제품** **HAVER**

505 - KED 「사랑세상 방영」

가발

조슬림!!

귀하의 불행과 인격을 놓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대표전화 : 062-873-5656, 02-422-1111

편람 매수 제 011-607-5330

대박 특화아이템

원인·중원의 특권을 고려합니다

기간 3개월 무료상담 무료 방문

ENI	10월~12월	10%~20% 할인
NTI	10월~12월	10%~20% 할인
LIIC	10월~12월	10%~20% 할인

1주부터 월 100만원 이상
4주부터 월 200만원 이상
8주부터 월 300만원 이상
12주부터 월 400만원 이상

1주부터 월 100만원 이상
4주부터 월 200만원 이상
8주부터 월 300만원 이상
12주부터 월 400만원 이상

문의 1588-2790

(주)우리텔 광주 전남본부

www.woortel.net